

### 로마 국제공항, 한국인 출입국 간소화

한국, 미국인들의 이탈리아 로마 국제공항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진다.

13일 이탈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은 지난 6일부터 한국, 미국, 호주 등 3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4세 이상의 전자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입국과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E-게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심사를 끝낼 수 있게 됐다. E-게이트의 운영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2시, 오후 5시에서 8시까지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 시간과 대기줄이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대면 심사에 비해 현저하게 짧은 터라, 출입국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피우미치노 공항은 지금까지 특히 장거리 입국편과 출국편이 몰리는 오후 시간대 입국심사 시 오래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김용갑 주이탈리아대사관 영사는 "이탈리아 내무부가 관광객 방문이 많고, 상호 관계가 좋고, 자국 체류 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은 한국 등 세 나라를 우선 선정해 자동출입국심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로마를 왕래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를 찾은 한국인 수는 작년 기준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 "미제 군용헬기 안 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현 정부가 결정한 미국으로부터의 군용 헬리콥터 구입을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 정부가 미국 보잉사에서 산 대통령 전용기도 매각하겠다고 말했다.



적 지역안보의 파트너인 멕시코군의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멕시코 범죄조직과의 전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11일 현지 TV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250억 페소(약 13억 6천 300만 달러)가 소요될 미국산 군용 헬리콥터 8대 구입을 중지하겠다."며 "무기 구입을 취소하는 것은 새 정부가 앞으로 수행할 광범위한 국가비용 감축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해군은 미국 록히드 마틴 산하의 시코르스키사제 MH60R을 배치할 예정이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월이 헬기의 판매를 승인하며 "이 헬기들이 미국의 전략

미국산 군용헬기 구입을 중지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현 정권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줘 대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실마리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대선 기간 페냐니에도 현 대통령의 대미 자세를 '겉쟁이'라고 비판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일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으며 올해 12월 1일에 취임한다.

### 중국 호텔 "미국인 손님은 25% 추가 요금"

미국이 징벌성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며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일부 중국 호텔과 식당이 미국인 손님들에게 25%의 추가 요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25%는 미국이 6일 중국 상품에 부과한 관세 비율이다.

13일 '동아일보'가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의 모던클래식호텔그룹은 얼마전 '미국인 투숙객에게 25% 추가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붙였다. 이 호텔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에 끝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화가 나 이렇게 결정했다."며 "미국인들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강경한 무역정책 때문에 미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때와 달리 관영매체들이 중국인들의 이런 보복, 분노 심리를 부추기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드 보복 당시 중국이 관영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적대 감정을 부추겼다가 사드 갈등 봉합 단계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통제하지 못했던 점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타임스는 "상황이 이해되지만 미국 고객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중국의 서비스산업 발전뿐 아니라 미-중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